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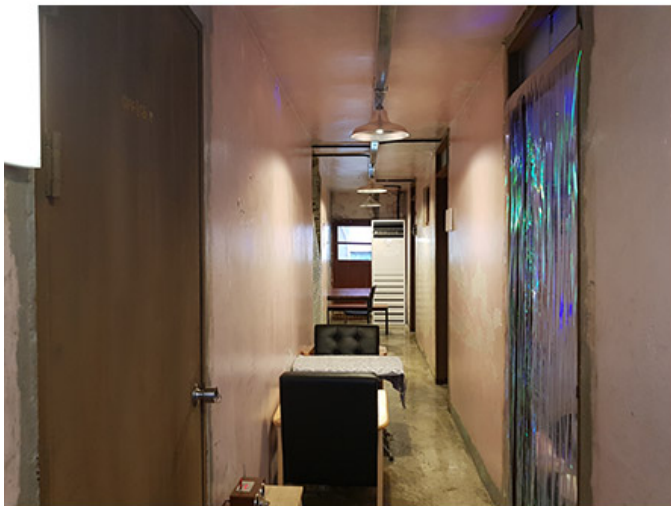
# 인천여관 루비살롱

인천여관x루비살롱 0 00 00 <인천여관>



건물 사이의 후미진 샛길에 숨어있는 '인천여관x루비살롱'

인천여관x루비살롱 인천여관 00 00 '인천여관' 000. 00 0 00 00000 0 00 00 00 000  
00, 00000 000 00 000 000000. 000 000 00 00 00000 00 00000 00 000  
00 0000 000 000 0000x000000 000. 00 000 000 0000 0000x000000 000  
0 00 0000. 000 000 00 00 00 000 000 000 000 000000 00000 00000 00  
0 0000 000.



버려진 낡은 여관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문화공간으로 탄생한 '인천여관X루비살롱'

인천X루비살롱은 인천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문화공간으로 탄생한 '인천여관X루비살롱'이다. 1960년대 인천에서 운영되던 여관으로,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이 공간은 최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 공간은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문화공간으로 탄생한 '인천여관X루비살롱'이다. 이 공간은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문화공간으로 탄생한 '인천여관X루비살롱'이다.

2020년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2층 전시장에서 세 번째 전시 <출망훈백화점>이 열렸다.



지난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2층 전시장에서 세 번째 전시 <출망훈백화점>이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출망훈, 백화점, 그리고 세 명의 다른 작가들이 참여했다. 출망훈은 2020년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2층 전시장에서 세 번째 전시 <출망훈백화점>을 열었다. 출망훈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2층 전시장에서 세 번째 전시 <출망훈백화점>을 열었다. 출망훈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인천여관X루비살롱'의 2층 전시장에서 세 번째 전시 <출망훈백화점>을 열었다.



이번 전시 <췁망췁백화점>은 기존의 공간 구조물에 자연스럽게 작품들을 배치함으로써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친근하게 풀어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넓고 허름한 여관 방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연출이 돋보인다.

204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공간은 이 공간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연출이 돋보인다.”  
 204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0 / 3.0